노재학의 한국산사 목조각 걸작 23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꽃살문

▶ 한줄 요약
한국산사 꽃살문의 백미로 손꼽히는 내소사 대웅보전 꽃살문의 제작 방식은 특별하다. 살대와 꽃조형을 통판투조처럼 일체로 조각했다.



400년 바람에 벼린 해탈의 꽃살문

격자살문, 빗살문, 띠살문, 솟을살문

'창호(窓戶)'는 '창'과 '호'를 합친 말이다. 국어사전에서는 '창과 문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설명한다. 특히 〈명문국어사전〉에서는 '창과 지겟문의 총칭'이라 정의하고 있다. '지겟문'은 또 무엇인가? '창'의 개념은 선명한데 비해 '호'의 개념은 낯설다. '호(戶)'의 갑골문을 보면 외닫이 문처럼 생겼다. 〈명문국어사전〉에서 '호'의 개념으로 설명한 '지겟문'이 외닫이 외짝문이다. 하지만 '호'는 '문(門)'과는 또 다르다. '문'은 대문, 중문처럼 외부에서 외부로 드나드는 경계에 설치하고, '호'는 부엌문이나 방문처럼 외부에서 밀폐된 내부로 드나드는 경계에 시설하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정리하면 이렇다. '창호'는 환기와 채광을 위해서 낸 '창'과 마루에서 방으로 들어가는 '문'을 합친 말로 정리할 수 있겠다.

창호는 외부와 내부의 경계에 낸다. 창호에는 한지로 만든 창호지를 풀칠하여 붙인다. 한지로 만든 창호지는 내부 공간의 대기 순환과 채광을 위한 지혜의 산물이다. 창호지를 붙이려면 바탕 버팀목인 살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살대는 생선의 뼈처럼 창호의 뼈대가 된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창호지를 창호의 살대 바깥에 붙인다. 그와 달리 한국은 살대 안쪽에 붙인다. 볕이 들면 창호 살대의 구성이 은은히 비춰지고 내부 공간에 따스한 분위기를 불어 넣는다. 창호의 살대 구성은 대단히 기하적이며 전통으로 전해지는 규범성을 가지고 있다. 창호 제작 공정을 보면 문틀인 울거미를 제작한 후 살대를 만들어 조립하듯 울거미에 끼워 완성한다. 살대에는 수평인 씨살, 수직의 날살, 사선의 빗살 등이 있다. 넓은 나무판 문짝에 조형을 뚫어 새긴 통판투조문의 경우는 조형 자체가 살대 역할을 한다. 살대를 엮은 형상과 각도에 따라 창호 종류가 나눠진다. 창호는 크게 날살문, 격자살문, 빗살문, 띠살문, 솟을살문, 특수형, 통판투조문으로 분류된다. 각 창호의 살대 구성과 각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날살문: 90도 날살로만 듬성듬성(▥) 단순하게 구성한다.

△격자살문: 0도 씨살과 90도 날살로 격자(#) 모양으로 엮는다.

△빗살문: 45도, 135도를 이루는 두 사선의 빗살로 엮는다.

△띠살문: 90도 날살을 일정한 간격으로 내린 후, 상단과 중간, 하단 세 곳에 음양의 조화를 생각하며 홀, 짝수 개의 0도 씨살을 엮는다. 씨살, 날살로 엮은 가장 보편적인 창호 형식이다.

△솟을살문: 30도, 150도의 두 빗살에 90도 날살을 더해 엮은 창호다. 때론 격자살과 빗살을 함께 엮기도 한다. 씨살과 날살, 빗살의 조합이고 변주다.

△특수형: 완(完)자창, 용(用)자창, 아(亞)자창, 귀갑문 등 문자나 상형의 특수한 살대를 가진 창호다. 궁궐이나 사대부 민가에서 주로 보인다.

통상 꽃조각은 격자살문이나 빗살문, 솟을살문에 부착한다. 그것이 꽃살문이다. 만약 모란을 부착하였다면 격자모란꽃살문, 빗모란꽃살문, 솟을모란꽃살문이 된다.

내소사 대웅보전은 정면 3칸의 건물이다. 임진왜란 이후인 1633년에 중창했다. 창호에 400년의 시간이 켜켜이 퇴적되어 있다. 창호는 중앙의 어간에 4분합문을 내고, 좌우 협간은 각각 2분합문을 달았다. 정면에 모두 8짝의 문짝을 달았다. 문짝 모두 꽃살문이다. 창호의 크기는 어간 창호가 93cm(가로)×271cm(세로)이고, 좌우 협간 창호는 109cm×271cm에 이른다. 살대 위에 조각한 꽃의 크기는 가로 세로 한 변이 평균 11cm로 측정됐다.

창호는 모두 3단으로 구성했다. 하부는 2단의 궁창으로, 중간은 꽃살문으로, 상부는 금강저솟을살문으로 짰다. 창호 배치는 대칭적이지만 창호에 베푼 조형은 비대칭적이다. 꽃살문끼리의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속에서도 저마다의 개성을 살려내고 있다.

'창호'는 채광 '창'과 방의 '문' 합친 말
꽃살문에 평면 채우는 테셀레이션 기법
일체형 꽃살문, 다보사와 내소사 두 곳뿐
단청이 바래고 나뭇결 드러낸 뼈대의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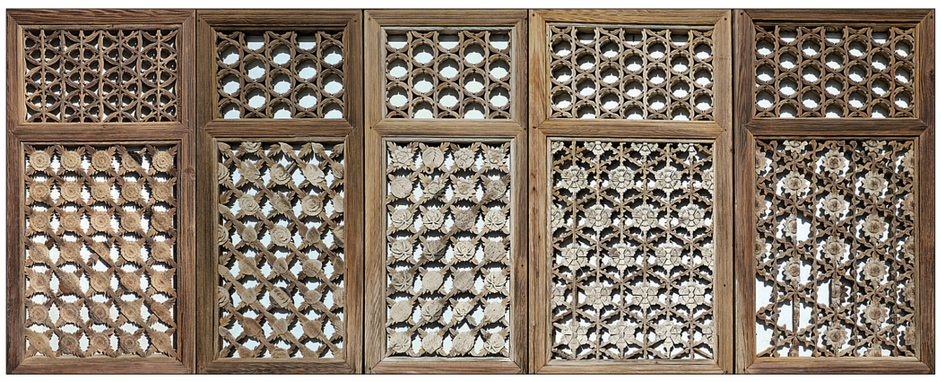
문짝 8곳에 10가지 꽃 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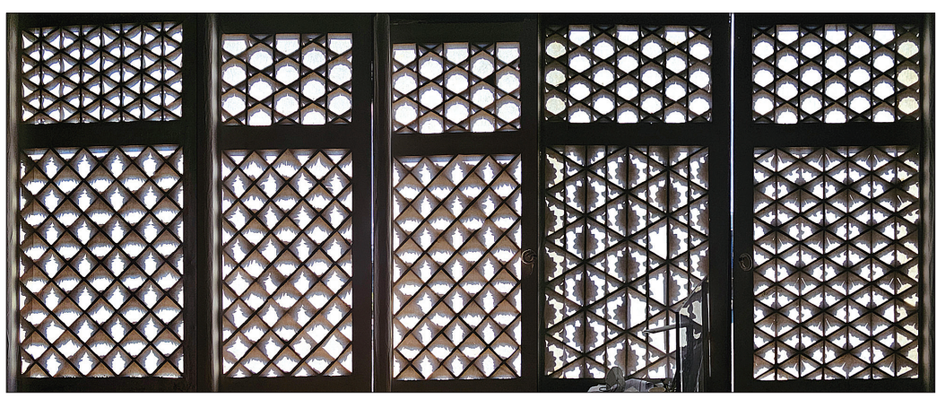
향좌측의 2분합문 협간 창호는 두 짝이 쌍둥이처럼 같다. 둘 다 7행 5열의 국화를 새긴 빗국화꽃살문이다. 마치 빗살문 위에 국화꽃 조형을 부착한 것처럼 보인다. 실제는 꽃과 잎, 빗살 살대 모두 같은 통판재에 일체형으로 조각한 것이다. 살대 모습은 내부에서 창호지에 비친 꽃살문 모습을 보면 정확히 드러난다. 꽃은 한결같이 만개한 상태다. 이 협간 조형의 개성은 상단에 뚜렷하다. 상단은 살대에 금강저 조형을 새긴 솟을금강저문이다. 살대 구성은 두 빗살과 하나의 수직 날살로 짰다. 날살은 두 빗살의 교점을 지난다. 그래서 한 점에서 여섯 개의 금강저가 뻗어나가는 형국이다. 날살에 새긴 여섯 개의 금강저는 면밀하게 짠 하나의 원 내부에서 햇살처럼 퍼져 나간다. 진리의 수레바퀴가 사방 연속한다. 원래 금강저는 번뇌의 싹을 자르고, 무명을 밝히는 진리의 상징 조형이다. 수직 날살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 솟을금강저문의 미묘한 조형원리를 파악할 수 있다. 홀수 번째 날살의 금강저는 양변에 모두 뾰족한 끝을 돌출시킨 미늘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짝수 번째 날살은 한 변에만 미늘을 새겼고, 다른 변은 60도 중심각의 부채꼴 원호처럼 둥글게 처리했다. 이 둥근 원호를 가진 여섯 개의 부채꼴이 중심에 있는 하나의 점에서 만나 커다란 원을 만들어낸다. 직선으로 대원을 만들어 내는 놀라운 기하학적 안목이 담겨 있다. 어간과 향우측 협간 꽃살문의 상단도 솟을금강저문이다. 그런데 향좌측 협간 창호의 상단과는 조형원리가 다르다. 이곳에선 수직 날살이 두 빗살의 교점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변의 중점을 지나게 변화를 줬다. 그리고 모든 날살에 날카로운 미늘과 둥근 원호를 교대로 새겨 육각형에 내접하는 작은 원을 연속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다. 날살의 금강저 조형에 미묘한 변화를 줘서 색다른 느낌의 테셀레이션 패턴을 펼치는 경이로운 수리적 감각을 보여준다. 꽃살문에 평면을 무한히 채울 수 있는 오래된 테셀레이션 기하학이 담겨 있다.

중앙 어간의 4분합문 창호는 좌우대칭이다. 모두 빗살문 위에 꽃을 새겼다. 문짝은 넷이지만 두 가지 문양 패턴이 나타난다. 가운데 두 문짝의 문양이 같고, 첫 번째와 네 번째 문짝이 서로 같다. 가운데 두 문짝에는 네 종류의 활짝 핀 꽃을 새겼다. 다른 두 문짝에는 세 종류의 꽃을 새겼지만 한 종류는 아직 개화하지 않은 꽃봉오리 상태다. 어간 4분합문에는 7가지 다양한 꽃들을 리듬감 있게 배치해서 풍부한 조형미를 느끼게 한다. 잎에 선연한 나뭇결이 천연스럽도록 사실적이고 자연스럽다. 꽃의 표정들은 수수하고 해맑다. 꽃 속에 담긴 순한 표정들이 보는 이의 마음을 어질게 길들인다. 꽃을 관상하는데 신심이 고요히 일고 미소가 번진다. 꽃 속에 무정설법이 담겼다.

향우측의 2분합문은 또 다른 변주를 보여준다. 두 문짝에 서로 다른 꽃조각을 새겼다. 빗꽃살문이 아니라 솟을꽃살문이다. 살대 조각도 다른 곳의 잎 조각과는 확연히 다르다. 갈고리 모양의 잎이라 표현하기조차 어렵다. 솟을꽃살문의 살대는 창호 상단의 솟을금강저문처럼 두 가지 패턴으로 제작했다. 하나는 수직 날살이 두 빗살의 교점을 지나는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날살이 두 빗살의 변의 중점을 지나는 유형이다. 이러한 다양한 변화와 반복, 대칭, 비대칭의 조직화가 내소사 대웅보전 창호가 내적으로 가진 가장 뛰어난 점일 것이다. 그것은 꽃살문을 제작한 소목장 장인의 탁월한 안목에서 비롯된다. 내소사 대웅보전 8짝 꽃살문에는 모두 10가지 꽃을 표현하고 있다. 향좌측협간부터 1가지, 7가지, 2가지로 모두 10가지 꽃을 새겼다. 10가지 꽃은 세상의 모든 꽃을 대신한다. 그 꽃들은 세세생생 시들지 않는 장엄의 꽃이며, 환희의 꽃이며, 헌공의 꽃이다.


내소사 대웅보전 꽃살문.


내소사 대웅보전 꽃살문 부분 . 왼쪽부터 1번(향좌측 협간)– 2, 3번(어간 창호)– 4, 5번(향우측 협간).


창호지에 비친 내소사 대웅보전 꽃살문 .

꽃과 잎, 살대를 일체형으로 조각

한국산사 꽃살문의 백미로 손꼽히는 내소사 대웅보전 꽃살문의 제작 방식은 특별하다. 살대와 꽃조형을 통판투조처럼 일체로 조각했다. 꽃살문의 경우 통상 살대를 만들고, 꽃은 따로 조각하여 살대끼리 만나는 교차점에 못으로 박아 부착시키는 방식으로 제작한다. 그런데 내소사 대웅보전 창호의 경우 살대와 꽃을 하나로 조각했다. 두께 6cm가 넘는 넓은 소나무 판재를 구해 깊이 5cm에 이르는 견고한 살대를 투조 기법으로 만든 후 윗면에는 꽃을 새기는 대단히 어려운 기법으로 꽃살문을 제작했다. 살대는 파내는 투조 기법으로, 상부의 꽃은 입체감이 도드라지는 돋을새김으로 조각한 쉽지 않은 제작 방식이다. 살대 없이 통판에 회화식으로 투조한 통판투조 기법보다 훨씬 품이 들고 어려운 새김질이 필요한 고난도라 할 수 있다. 꽃과 꽃잎, 빗살과 솟을살의 살대 모두 한 몸으로 조각한 대단히 드문 사례다. 이 같은 제작 방식은 내소사 대웅보전과 나주 다보사 대웅전 꽃살문에서만 엿볼 수 있다. 두 곳 창호 모두 통판재를 사용했다. 그런데 향좌측 협칸이나 중앙의 어간 꽃조형 몇몇 곳에 쇠못을 박은 것이 뚜렷이 보인다. 통판재로 조각한 꽃살문인데 쇠못 사용은 어찌 된 영문일까? 사방으로 깊이 파내려간 살대 위에 꽃조형을 조각하다 보니 나무 비틀림에 꽃조형이 떨어져 나갈 우려가 있어 쇠못으로 단단히 고정시켜 둔 것이다. 쇠못은 조형 안정화를 위한 일종의 보정작업으로 이해된다.

오랜 세월이 묻어나는 나무 뼈대의 미감은 특별하다. 단청 빛은 바래 사라지고 나무가 서사처럼 간직해 온 나뭇결이 드러났다. 메마르고 수척한 나뭇결이 늙은 아버지 어머니 손등의 주름 같다. 마을 고샅 같고 흐르는 강물을 닮았다. 핏줄 같은 황톳빛 나뭇결에 따스한 질감이 뱄다. 꽃살문에 물리지 않는 자연주의 미감이 고요히 흐른다. 400년 바람에 벼리면서 색과 아상을 여읜 해탈의 꽃살문이 내소사에 있다. 한국산사 꽃살문 걸작이다.

〈사진작가〉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산수유열매,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복령, 옥수수수염, 천문동, 맥문동, 감초뿌리줄기, 뽕나무뿌리껍질, 창출뿌리줄기, 작약, 황기, 칡뿌리,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간과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으로 해결하세요. (본초강목)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소개합니다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귀울림), 두통,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만성설사, 목이 쉬었을때, 건망증, 협심증, 위염, 변비, 안면신경마비, 졸음병, 실어증, 삼차신경통, 간경화, 황달, 대상포진, 피부가려움증, 생리통, 생리불순, 다이어트, 귀머거리, 녹내장, 갑상선 이외
총 287종이 수록되어 있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측백나무, 자소엽, 서목태, 복분자, 삼백초, 참당귀,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솔잎, 녹차잎,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 루 자 죽 염 125g 45,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82,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50,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